

여수~통영~부산 잇는다…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

오늘부터 나흘간 남해안 일대에서 10개국서 24척·229명 참가
가막만 인근 크루저 관람 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다채

‘2025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를 비롯한 경남 통영시, 부산광역시 등 남해안 일대에서 개최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10개국 요트 24척, 229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3일간 총 263km 구간을 항해하는 장거리 경기를 펼치게 된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해 지난 2020년 처음 시작됐다. 국내 최초 3개 시도·도가 연계한 요트대회로, 남해안권 상생 발전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여수시, 통영시, 부산시가 돌아가며 개최식을 열고 있으며, 올해는 오는

13일 통영시에서 개막한다.
올해 경기는 크루저급 ORC I, ORC II 두 클래스로 나눠 진행되며 여수 코스타 레이스, 통영 코스타 레이스, 통영에서 여수와 부산으로 오가는 다양한 코스의 경기가 진행된다.
여수시는 국제요트대회의 흥행을 위해 전 연령층이 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구성했다.
14일과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여수 소호요트마리나에서 윈드서

핑, 카약, 당기요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소호요트마리나에서 출발해 가막만 인근을 항해하는 ‘크루저요트 해상관람’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14일 항해를 마치고 여수에 도착한 선수들을 위한 환영의 밤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소호요트마리나 현장에서 당일 선착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

수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여수공공스포츠클럽(061-685-8220) 또는 전남요트협회(061-683-4511)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와 통영, 부산을 잇는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전례의 절경을 자랑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따라 펼쳐질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해 아름다운 여수의 섬과 바다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민 상’·‘자랑스런 여수인’ 추천 접수

8월8일까지 사회복지 등 7개 부문

전라남도 여수시는 오는 8월 8일까지 ‘여수시민의 상’과 ‘자랑스런 여수인’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시민의 상’은 지역사회와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현저히 공헌하거나 탁월한 재능으로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추천 부문은 △지역개발 △산업경제 △교육과학 △문화홍보 △사회복지 △체육진흥 △향토방위 등 7개이다.

후보자는 시장, 시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대학장 및 각급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도 추천 가능하다.
‘자랑스런 여수인’은 관계, 법조계, 재계, 학계, 군인, 체육인, 문화예술인 등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자 중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출향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여수시 누리집에서 추천서를 내려받아 관계 서류와 함께 시청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총무과(061-659-31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를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상인 만큼 전 시민이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는 공로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민의 상’은 지역사회 환원에 앞장선 김완식 코리아월드서비스㈜ 대표이사와 전사 국가유공자 명예회복에 이바지한 정일량 무공수훈자회 여수시지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수=이경기 기자

14일 이순신공원 반려견 놀이터 문 연다… 무료 동물 등록 등

전라남도 여수시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이순신공원 반려견 놀이터(사진)’가 오는 14일 정식 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순신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 2023년 5월23일 문을 연 ‘미평공원 반려견 놀이터’에 이은 두 번째 공공 반려견 전용공간이다. 시비 2억1000만원을 투입해 942㎡(약 280평) 규모로 조성됐다.
놀이터에는 천연잔디, 울타리, 견주 쉼터, 음수대, 배변봉투함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만일의 사고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돼 있다.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한 체고(발바닥-어깨) 40cm 이하의 중·소형견만 입장 가능하며, 맹견이나 맹견 혼종견은 출입이 제한된다.
견주는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는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단독 입장이 불가하다. 반려견 놀이터는 연중



상시 개방되며, 기상악화 또는 시설 관리가 필요한 경우 휴장한다.
시는 반려견 놀이터 개장을 기념해 오는 14일 무료 동물 등록,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 간이 건강검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부대행사는

야외 행사인 관계로 우천 시 취소될 수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여수시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영농철을 맞아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청 직원들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재해 예방 ‘앞장’

전라남도 여수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 재해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한 작업 능력 저하, 근골격계 질환 위험 증가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농작업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지원하는 ‘농업인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관리 시범사업’, 농작업장 환경 개선 및 위험 요소 사전 조치를 위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4곳,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농업인 안전교육, 농작업 재해 예방 컨설팅, 작업 자세 개선 도구 및 방진 마스크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은 곧 지속 가능한 농촌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농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리듬오브더나이트’ 캔들라이트 콘서트 개최

15일 소호동동다리 대광장서

전라남도 여수시는 오는 15일 오후 8시 소호동동다리 대광장에서 올해 첫 번째 ‘Rhythm of the Night, Yeosu(리듬 오브 더 나이트, 여수)’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현악 4중주팀 ‘리수스와 르벳’이 출연해 클래식 명곡부터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바울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앙상블 연

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연주곡으로는 비발디의 ‘사계-여름’, 쇼스타코비치 ‘왈츠’, 영화 노팅힐, 미션 등 OST, 김광석의 대표곡이 포함돼 있으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낭만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좌석에 착석하면 된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해양공원, 웅천진수공원, 예술마루 분수광장에서 총

3회에 걸쳐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진행, 약 33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야간 관광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름밤의 정취를 한층 더하는 이번 공연으로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수밤바다와 어우러진 수준 높은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MyK FESTA in 여수’를 개최하며, K-팝 콘서트, 해외 커버댄스팀 공연, 대규모 드론 라이트쇼 등 풍성한 한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반’ 운영

매주 화·목 주민센터 등 순회

전라남도 여수시는 탄소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반’은 매년 고장 난 자전거를 무상 또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해 주는 시책이다.
올해도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센터, 도서관, 근린공

원 등을 순회하며 운영된다.
선원동에 위치한 여수 자전거문화센터에서는 브레이크 케이블, 공기압, 기어변속, 핸들·안장 조절 등의 기본 점검을 상시 무상으로 수리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자전거 정책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